

# 야당 못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1순위'

### 지역 국회의원 상임위원장·상임위 배정 어떻게 돼가나

### 김동철 의원 법사위원장 희망... 당 지도부선 난색

### 기재위-김영록, 교문위-박혜자, 정보위-박지원·김광진

여야간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임과 상임위 배치 문제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가 정보위원회 상설화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상임위 배정 문제와 관련,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임위의 경우만 결정할 채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는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선임 =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자리를 놓고는 광주의 박주선 의원과 서울의 설훈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설 의원은 19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신학용 의원에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버리고 있지만 박 의원이 문화수도 광주의 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설 의원보다 나이가 많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현안이 많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순위로 법사위원장, 2순위 상임위원장을 희망했던 김동철 의원의 경

우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애초 원내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을 법사위원장, 김 의원을 산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노영민 의원이 산업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전반적인 위원장 선임 문제가 흐트러졌다. 이에 지도부는 1년씩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냈으나, 박 의원 모두 거부한 상태다.

◇상임위 배정 =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중폭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부처 위주로 상임위 구성을 잠정 확정하고 지난 14일 해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 결과, 광주·전남의 박주선·박혜자·김영록·주승용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결정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태연 의원을 간사로, 유인태·박주선·설훈·조정식·안민석·유기홍·도종환·박혜자·윤관석·박홍근·배재정·유은혜 의원으로 구성

됐다. 다만, 교문위는 1~2명 정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윤호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신계륜·박영선·오제세·우원식·최재성·김원미·김영록·홍중학·김관영·박범계 의원이 참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위원회는 정청래 의원을 간사로, 강창일·주승용·노웅래·박남춘·유대운·진선미·김민기·임수경·김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인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이석현·김영주·은수미·한정애·장하나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중복가능)는 남윤인수 의원을 간사로 하고 유승희·이인영·박혜자·홍익표·임수경·진선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담상임위와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보위원회에는 신경민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문화상·박지원·문병호·김광진 의원과 원내대표 당면직인 박영선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창극 사퇴하라” 광주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야 '문창극' 임명동의안 앞두고 정면 충돌

### 새누리 "국민판단 기회줘야" 새정치 "지명철회·자진사퇴"

박근혜 정부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한

편 내부의 부정적 의견을 단속하는 데 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그 과정에서 부적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발했던 당권 주자들

과 초·재선 의원들은 대체로 목소리를 낮추고 정국축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창극 카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분회의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후보자 낙마에 총력전을 펼쳤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이런 총리 후보자가 있었는지 모

르겠다”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으며,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두 달째인데, 엉뚱한 인사문제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와 관련,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데 좋겠다”고 말해 반축을 샀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내정 박지원 의원

## “문창극, 총리 임명 강행때 국민·역사적 강력 저항 불러”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6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와 관련 “반민족적,반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최근 ‘아베 브라더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해야 한다. 절대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식민사관 소유자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위안부와 같은 만행에 대해 일본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구서를 17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께서 청문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내일 제출한다고 하면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최소한 국민과 역사 앞의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문창극 국무총리 임명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정직권을 넘어 국민적, 역사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 광산을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공동대표 측에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설 경우, 다시 한번 호남민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전체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순천·곡성, 담양·함평·영광·장성 7·30보궐선거 서갑원·이개호 출마 공식 선언

이개호(54) 전 전남도행정부지사와 서갑원(51) 전 국회의원이 16일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서 전 의원은 순천·곡성에 각각 출마표를 던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강한 경쟁력을 가진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21세기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 전남시대를 열었던 힘과 지혜를 지역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킨 공직생활 경험과 퇴임 이후에도 오직 지역과 주민만을 생각하며 정도(正道)를 지켰다”며 “새정치를 여는 새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행정고시 24 회로 지난 1980년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공직에 몸을 담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고향인 담양을 비롯한 지역구인 곡성 등이 없어지는 아픔에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주목을 받았다.



서 전 의원은 이날 “MB 정권에 정치적 탄압을 받은 노무현대통령 적자로서 정치탄압을 딛고 단절된 지역발전의 정상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순천시민들의 용기와 격려에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 있게 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순천시와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17·18대에 내리 당선된 바 있는 서 전 의원은 당직회복 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경선 참여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訃告

相昱 大人密陽朴公 順龍(의료법인 여수성심종합병원) 여수노인전문병원) 학교법인 영산중고등학교 재단회장)께서 二〇一四年 六月 一六日(음력 五月 一九日) 午後 一時 二二分 宿患으로 他界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殯 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4호  
發軔日時: 2014년 6월 18일(소) 오전 9시 20분  
葬 地: 全南羅州市先塋下(下管式 午後 五時)

2014년 6월 17일

嗣子	女	婿	未亡人	護喪
相昱	鉉善	宋仁錫	李順喆	尹金範
相昱	鉉善	宋仁錫	李順喆	尹金範
相昱	鉉善	宋仁錫	李順喆	尹金範

여의료법인 좋은사람들  
여수성심종합병원  
공립여수시노인전문병원  
학교법인 영산중고등학교

連絡處: 02-12072-12020(殯所)  
061-650-8708(病院)